

환상과 신화로 풀어낸 '전남 이주사회'

전남도립미술관 기획전 '몽상블라주'

베트남·아프리카 등 해외작가 참여
모태·변이·혼몽 등 3개 키워드 조명
"미술 통해 인권·다문화 공존 함축"

전라남도도는 다문화 가정 비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전남도립미술관은 전남의 이주 생태계를 조망한 기획전 '몽상블라주 The Assemblage of Dreams'를 오는 12월 8일까지 선보인다. 한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이주' 현상과 그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는 전시로, 이주민의 인권과 다문화 존중에 대한 가치를 환기한다. 전시에는 전남 출신 작가들이 포함된 5명의 한국 작가들과 가나·미국·베트남·중국·태국·아프리카 출신의 해외작가들을 포함해 총 11명이 참여한다.

'몽상블라주'는 '몽상(夢想)'과 '집합·조합'을 뜻하는 '아상블라주(Assemblage)'의 합성어로 '꿈들의 집합체'라는 공존의 사회를 은유한다. 일자리·학업·결혼 등 여러 이유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로 꾸준히 이주하고 있는 가운데, 전시는 문화의 교류, 충돌, 융합, 교배 현상에 천착하며 진화



정영창 작 'SSAL(쌀)'. 전남도립미술관 제공

가능성에 대한 사유를 이끈다. 이주민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매개자로 자리하게 된다.

전시는 이주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해석한 '모태·변이·혼몽' 3개의 키워드를 가진다. 첫 번째 '모태(母胎)'는 '자신의 존재가 발생한 토대인 태생지'를

의미하며 주로 태생지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정체성과 기억 등을 다룬 작품들을 포함한다. 모태에는 전남 출신 박문종, 김형숙과 가나 출신 엘 아나추이(El Anatsui),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의 영상·설치 작품들을 선보인

다.

두 번째 '변이(變移)'는 '장소를 옮겨서 변한다'는 의미로 전쟁, 정치 격변, 인종 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나 개인사로 인해 낯선 환경으로 이주하며 생긴 갈등과 정체성의 고민 등을 표현한 작품들이 포함된다. 여기에 전남 출신 정영창, 박동화와 베트남 출신 투안 마미(Tuan Mami)의 설치·회화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혼몽(混夢)'은 '꿈들이 혼재한다'라는 뜻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저마다 새로운 꿈을 꾸며 공존하는 삶을 가리켜, 꿈·환상·신화 등과 관련한 작품들을 아우른다. 여기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기라와 태국 출신 아피차퐁 위라세타쿰(Apichatpong Weerasethakul), 중국 출신 루 양(Lu Yang), 미국 출신 태미 응우옌(Tammy Nguyen)이 참여해 설치·영상·회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 관장은 "다문화 사회로 빚어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의 가치와 존중에 대한 의미를 함축하는 전시다"며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펼치는 다채로운 작품 세계를 통해 다양한 꿈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공존의 사회를 함께 그려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

제2회 박효선연극상 수상작 '환생곳' '섬이야기'

5·18 등 역사적 사건 주제
오늘날 문제의식 확장 호평
21일 민들레소극장 시상식



박효선 연극상 운영위원회와 사단법인 한국민족극협회는 제2회 박효선연극상 수상작으로 지정남의 '환생곳', 크리에이티브 VaQi의 '섬이야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작으로 선정된 두 작품은 역사적 사건(4·3항쟁, 5·18민중항쟁)을 다루며 사건의 재현을 넘어 '오늘', '여기'의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데에 치열함이 돋보였다.

지정남의 '환생곳' 작품은 전통적인 곳의 전개를 따르면서도 곳의 과정, 인물들, 곳이 풀어내고 있는 사건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주목된다.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은 곳과 마당극의 활달함에 천착해 참혹한 폭력의 사건을 오늘의 이야기로 전하고 있다"며 "특히 5·18민중항쟁 서사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을 보여준다. 항쟁에 참여했던 여성들의 이야기에 주목하는데, 도청진압 이후 유치장에서 벌어진 생리대 싸움의 승리를 포착함으로써 시민들의 연대와 열망을 다시 환기한다"고 평했다.

크리에이티브 VaQi의 '섬이야기'에 대해서는 "4·3항쟁 유족들의 증언을 직접 무대 위에 올리고 그것의 퍼포먼스적 재해

석을 통해 사건과 재현, 사건과 연극, 과거와 오늘의 연결을 더욱 단단히 한다"고 평했다.

제2회 박효선연극상은 지난 6월 공모를 실시, 서울·대구·일본 등 각 지역에서 총 26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박효선은 1980년 5·18민중항쟁 당시 도청 항쟁지도부 홍보부장이었고 항쟁 이후 5·18을 소재로 한 △금희의 오월 △모란꽃 △정실홍실 등을 창작해 오월의 진실을 알린 연출가이자 작가이다. 박효선 연극상은 고 박효선(1954~1998)의 시대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22년 제정되어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3시 박효선이 창단했던 광주의 극단 토박이 '민들레 소극장'에서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임철우 작가의 '박효선과 나' 토크도 진행된다. 임철우는 박효선의 친구로 전대연극반과 들불야학 활동을 같이 했다.

이날 수상작 2편의 하이라이트 장면도 공개된다. **도선인 기자**



서울경기춤연구회가 오는 21일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에서 전통연희 및 한국무용 무대를 펼친다. **광주문화재단 제공**

서울경기춤연구회 초청무대 21일 전통문화관 너털마당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오는 21일 오후 3시 스물 네 번째 토요일 상설공연에 서울경기춤연구회를 초청한다. 무대는 너털마당에서 '풍류이십 3.서울을 노닐다'라는 제목으로 전통연희와 한국무용이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많은 전통 춤들이 소멸된 지금, 미약하게나마 전승되고 있는 전통 춤 6선을 복원하고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했다. 전통춤 6선은 강선영류 경기검

무, 조흥동류 한량무, 조흥동류 장고춤, 조흥동류 진쇠춤, 강선영류 즉흥무, 원완생수이다.

'서울경기춤연구회'는 서울·경기권에서 파생·발전된 전통춤을 계승하기 위해 무용가들이 모여 결성된 예술단체다. 현재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종목과 더불어 잊혀져 가는 다양한 전통춤을 찾아 연구하고 활성화 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김미란 총감독, 윤종현 총연출, 박소영 안무 및 출연 등이 함께한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전통문화관

에서는 토·토·전!(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을 슬로건으로 절기 관련 체험 및 연희·민속놀이, 한복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펼쳐진다.

전통문화관 모든 프로그램은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토요일 전통문화관에서 체험과 공연 등을 모두 즐긴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다화용 타월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전통문화관 토요일상설공연 다음 공연은 오는 28일 진행되며, 국악작곡 무대로 도소리가 '민요의 향연', 왕의 남자 OST '인연' 등을 무대로 올릴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ACC 전시 '모두의 도원' 중국 순회 시작

주중한국문화원 첫 협력전
12월까지 북경·광저우·상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오는 11월 6일까지 북경 주중한국문화원에서 미디어 전시 '모두의 도원'을 선보인다.

'모두의 도원'은 ACC와 주중한국문화원의 첫 협력전시다. ACC는 한국의 시각 예술 콘텐츠 확산을 위해 주중한국문화원, 주상하이한국문화원, 주광저우 대한민국의총영사관과 협력해 ACC 창·제작 작

품으로 새롭게 기획된 미디어아트 순회전을 진행한다.

예술과 과학기술을 결합한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온 ACC는 연중 상시 관람 체계를 구축하고 국내외 기관들로 유통망을 넓힘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왔다.

이에 이번 중국 소재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전시는 해를 거듭하며 축적된 ACC 창·제작 작품들이 다시 새로 기획돼 글로

벌 무대에서 소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시에 중국 주재 한국문화원과의 협력은 앞으로 중국 내 'K-아트'의 우수성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발판 마련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는 ACC에서 지난 2022~2023년에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었던 '하니풍경'(야외전시), '사유정원'(관람객 19만 명), '몰입미감'(관람객 14만 명) 전시의 창·제작 작품들 중 '자연'을 주제로 연관된 작품들을 한데 꾸렸다.

전시는 '자연'을 주제로 한국의 근현대 화가들이 사색한 자연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것에서 시작해 우주의 모든 요소

가 연결돼 순환한다는 동아시아의 사유를 통해 형상을 넘어 심상으로 그 깊이를 확장해 나간다. 이상향을 뜻하는 '도원'은 종종 닿을 수 없는 것으로 느껴지지만 자연에서 평온함을 찾는 인간의 본성에서 '자연'은 우리 모두의 도원으로 마음속에 존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총 7인 작가 8개 작품(미디어 7점, 설치 1점)이 전시 될 예정이다. 참여작가는 지난해 야외전시 '하니풍경'의 이이남, '몰입미감'에서 미디어로 재해석된 근현대작가 김규진, 이용우와 현재까지 남종화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허달재와 지난 2022년 '사유정원' 전시

작품의 고취, 서동주, 정성운 작가다. 12일 오후 북경 주중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과 이이남 작가가 참석한다.

이번 '모두의 도원' 전시는 9월 북경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광저우, 12월 상해에서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강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문화전당의 지원으로 제작된 우수한 창·제작 작품들이 더욱 글로벌 무대에서 소개되길 바란다"면서 "동시에 앞으로 주중한국문화원과 더욱더 다채로운 교류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선인 기자**